

2023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4. 1. 15. (월) 10:00~11:5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4명 중 12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이영화(의장), 이동일, 김미라
 - 나. 직원대표 : 조현미(부의장), 한주호
 - 다. 조교대표 : 박한빛
 - 라. 학생대표 : 한설희, 정포근
 - 마. 동 문 : 이귀우, 문지현
 - 바. 외 부 : 백성기, 김태현
4. 불참자 : 신현숙(교원대표), 이주형(교원대표)
5. 안건
 - 가. 심의안건
 - 1) 대학원 전공/과정 신설(안)
 - 2) 대학원 학칙 개정(안)
 - 3) 직제규정 개정(안)
 - 나. 자문안건
 - 1) 2023학년도 추가경정자금 예산(안)
 - 2) 2024학년도 자금예산(안)

1. 대학원 전공/과정 신설(안) 심의

대학원장이 휴먼서비스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과정 신설’ 및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등이 포함된 대학원 전공/과정 신설(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신설(안)’이 서울여대 정신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목표가 궁금하다
- 서울여대는 사회보육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아동학 관련 여성지도자 양성에 대한 사명과 부합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대학의 SI(Social Innovation)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휴먼서비스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과정’을 신설하게 된다면 모집 대상은 누가 되는지와 홍보 방안에 대한 설명 및 일반대학원에 설치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해당 석사과정 모집 대상은 국내 직장인 및 외국인 학생이 주 대상이다. 또한, 서울여대와 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 대학교 소속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 소화여대와 복수학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일정 수 학생들과의 교류를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금번 총장님 일본 출장 기간 중 방문 한 일본 협정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학과 및 대학원 과정 중 직접적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에 홍보 예정이며 주/야간 입학대상자를 구분하여 홍보하고자 한다.
- 일반대학원의 경우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직장인 및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졸업 논문 제출이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휴먼서비스대학원에 해당 과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 대학원 과정 신설 시, 입학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모집단위별 홍보효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학기준 초기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재 국어국문학과는 한국어교육전공 주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업 시간 상 직장인들이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학사학위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석사과정으로 신설하고자 한다.
- 대학원 전공/과정 신설(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2. 대학원학칙 개정(안) I

대학원장이 일반대학원 과정 신설과 휴먼서비스대학원 전공 신설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함을 설명하다.

- 의장이 휴먼서비스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과정 신설’ 및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대학원학칙의 개정이 필요함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다.

3. 대학원학칙 개정(안) II

대학원장이 특수대학원의 학기당 이수학점을 매학기 최대 9학점으로 확대하여 원생들

에게 다양한 전공수업 수강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원학칙」을 개정하고자함을 설명하다.

- 대학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특수대학원도 학기당 이수학점이 확대되면 학교 재정적 수입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수용 연한이 축소됨에 따라 재정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학과와 대학원이나 학교의 재정 사항을 감안해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학교의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4학기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타 대학 사례를 조사했을 때, 타 대학 4학기 등록금 총액과 본교 5학기 등록금 총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으며 이는 본교 등록금 수준이 타 대학 대비 낮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5개 학기동안 학생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학기별 수강과목을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번 대학원학칙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기당 이수학점이 9학점으로 확대되는 경우 학생들이 학기에 여러 과목을 듣게 되어 대학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필요 이수학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5학기 동안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설명하다.

4. 대학원학칙 개정(안) III

대학원장이 박사과정 신설 기준을 2024년 2월 29일까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기존 교육부 신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학칙 조항을 신설하였음을 설명하다. 또한, 산학연구처가 신설됨에 따라 연구의 활성화와 대학원 발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원위원회와 대학원발전위원회에 산학연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 「대학원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5. 직제규정 개정(안)

기획처장이 중장기 발전계획 중 미래선도 참여교육 확산과 그 세부 항목인 융합교육 혁신과 함께 마이크로전공 및 학생자기설계전공 등 신규 융합교육과정, 기존 연계 융합전공 등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및 통합관리체계의 필요성 등을 반영한 융합교육지원센터 신설 취지를 설명하다.

- 이전부터 연계 융합전공 관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에 따라 융합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설명하다. 특히, 무전공 입학 정책 시행으로 인한 융합

교육지원센터 필요성을 추가 설명하며 의장이 동의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6. 2023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자금예산(안) 및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 예산(안)

기획처장이 2023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 자금예산서 내용 중 운영 수익과 운영 지출 등이 포함된 2023학년도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다. 수입과 지출 항목 중 비중이 높은 항목순으로 나열하며 마이너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 인출이 불가피함에 대해 설명하다. 계속하여,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자료를 토대로 총 예산 및 적립금 인출 금액 규모에 대해서 설명하며 다양한 정부 사업 신청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인한 수익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다.

○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센터의 2024학년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다.

- 베트남 비자 발급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한국어교육센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타 대학 대비 현저하게 낮은 본교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체류비율이며 이는 본교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역량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 외 해외에서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대체 시장을 발굴하는 노력을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하였으며 몽골, 미얀마 및 카자흐스탄 국적의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4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2024학년도 예산(안) 수립 시 고려된 집중적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며 학생들의 중도탈락률 증가 요인으로도 분석되고 있는 시설 노후화 및 강의실 수업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다.

- 2024학년도에는 대강당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건축 분야 예산 비중이 작년 대비 2배 증가된 상황이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는 지출을 하되 전체적으로는 절감하는 노력을 하여 인출금액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재적립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법인의 법정 부담금 부분을 대학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기금 고갈이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법인에서 들어오고 있는 법정 부담금 규모 및 추가적으

로 필요한 금액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의 책무성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기획처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2월 초 이사회 예·결산 보고 시 해당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참고 사항으로, 교육부 기준 법인 법정 부담금 비율을 충족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7.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의장이 2023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전체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8. 차기 회의 일정

- 차기 회의는 학사구조 개편에 의한 학칙 개정(안) 심의와 결산 자문을 위해 2024년 4월 개최 예정임을 알리다.

의장이 11시 5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4년 1월 15일

의 장	이 영	<u>이영화</u> 이영화 (2024년 1월 18일 18:50 GMT+9)
부 의 장	조 현	<u>조현미</u> 조현미 (2024년 1월 17일 23:40 GMT+9)
평 의 원	김 미	<u>김미라</u> 김미라 (2024년 1월 18일 11:17 GMT+9)
평 의 원	이 동	<u>이동일</u> 이동일 (2024년 1월 18일 09:23 GMT+9)
평 의 원	한 주	<u>한주호</u>
평 의 원	박 한	<u>박한빛</u> 박한빛 (2024년 1월 19일 10:27 GMT+9)
평 의 원	정 포	<u>정포근</u> 정포근 (2024년 1월 17일 21:00 GMT+9)
평 의 원	한 설	<u>한설희</u> 한설희 (2024년 1월 19일 12:20 GMT+9)
평 의 원	이 귀	<u>이귀우</u>
평 의 원	문 지 현	<u>문지현</u>
평 의 원	백 성	<u>백성기</u> 백성기 (2024년 1월 23일 13:20 GMT+9)
평 의 원	김 태	<u>김태현</u> 김태현 (2024년 1월 17일 21:33 GMT+9)
간 사	김 홍	<u>김홍석</u> 김홍석 (2024년 1월 17일 20:21 GMT+9)